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순천만정원 내달 1일 개장

스페이스 허브서 개막식...2000여명 참여 초대형 퍼레이드

AI·애니메이션 입혀 새단장...정원문화산업도시 도약 선포

순천만국가정원이 4월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컨셉트로 새롭게 문을 연다.

순천시는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순천만국가정원 개막식을 스페이스 허브(남문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로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된 순천시는 국가 정원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요소 위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를 더하고,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디지털 요소를 덧입히는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개막은 대한민국 제1호 정원 도시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순천시가 정원에 AI와 문화콘텐츠를 더해 정원문화 산업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선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막식이 열리는 ‘스페이스 허브’는 동문과 서문을 잇던 유희공간을 새롭게 단장한 곳으로, 1만 510㎡(4700평)에 달하는 광활한 광장으로 재탄생했다.

우주선이 내려앉은 모습의 ‘스페이스 브릿지’와 새롭게 조성된 ‘스페이스 허브’는 어린이들의 꿈을 우주로 상징되는 미래로 실어 나른다는 의미를 담

았다. 개막식은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이라는 주제로 24개 읍면동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정원문화 산업도시 선포식, 어린이·청소년·청년 연합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2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스페이스 허브 활주로에서 펼쳐지는 육상·수상 퍼레이드 플라보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4월 1일 개막을 시작으로 연중 운영될 계획이다.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관람료는 일반성인 기준 1만원, 순천시민은 2000원으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모두 관람할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개막식은 정원문화 산업도시라는 순천의 새로운 비전을 널리 알리는 특별한 행사가 될 것”이라며, “순천의 우수한 아날로그적 정원 위에 문화콘텐츠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더해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만국가정원이 4월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을 컨셉트로 개막을 알린다. 새롭게 선보이는 스페이스 브릿지와 스페이스 허브. <순천시 제공>

드론 1500대 비행쇼...고흥 녹동항 드론쇼 4월 13일 개막

10개월간 매주 토요일 특별공연

야간관광의 킬러콘텐츠로 자리매김한 고흥 녹동항 드론쇼가 4월 13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0개월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녹동항 드론쇼는 드론중심도시 고흥의 위상과 고흥관광 및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시작한 고흥의 대표 야간 볼거리 관광 기획 상품이다.

올해는 2025년 1월까지 10개월간 다채로운 조명과 음악에 맞춰 고흥을 주제로 매주 토요일 밤마다 녹동항 일원에서 상설과 특별공연으로 운영한다.

소록대교 야경을 주 배경으로 다양한 색상과 음악 패턴의 환상적인 군집비행 퍼포먼스를 선보여 매주 관객들에게 멋진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상설공연은 4월 13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8개월간 매주 토요일마다 당초 드론 500대에서 드론 700대 규모로 확대했다.

공연 관람시간은 하절기(4~9월)는 오후 9시, 동절기(10~11월)는 오후 8시, 단 한 차례 진행한다. 특별공연으로 계획된 개·폐막식, 고흥유자축제, 새해 카운트다운, 추석과 설 연휴 등에는 1000대 이상 군집비행쇼와 더불어 스페셜 불꽃 드론쇼 공연으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4월 13일 오후 8시부터 펼쳐지는 개막공연은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전남권 최초 드론 1500대



오는 4월 13일 고흥 야간관광의 킬러콘텐츠로 자리매김한 녹동항 드론쇼가 개막공연을 펼친다. 드론쇼 모습. <고흥군 제공>

군집비행쇼가 진행된다.

주말 드론쇼가 펼쳐지는 녹동항 드론쇼 공연장 주변으로 먹거리 타운 포차&푸드 트럭존과 농수 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볼거리, 즐길거리 체류형 야간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지역경제활성화

와 고흥관광에 활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녹동항 드론쇼는 23회 공연으로 18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150여 명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보성군,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 선정

미력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보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농공단지 패키지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보성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미력농공단지에 국도비 57억 원 등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청년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등을 추진한다.

보성군은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해 미력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설과 환경개선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문화센터’ 1층에는 다목적 청년 문화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구내식당, 북(book) 카페, 관리사무소, 2층에는 주거형 원룸 10실과 컴퓨터 배치했다. 특히, 주거형 원룸을 신설했다 타지역 출퇴근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들의 지역 내

거주를 유도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은 농공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정비, 녹지공간 확충, 야간조명 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낮에는 근로자 중심의 휴게공간으로, 밤에는 지역민들의 산책과 운동을 위한 일상의 힐링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보성군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산업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2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광양산업단지 상생협의회의와 간담회

광양시가 지난 26일 광양국가산업단지 상생협의회의와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광양국가산업단지 상생협의회장인 ㈜포스코MC마티리얼즈 장봉수 그룹장과 부회장 조순내(화우)정용수 실장, ㈜피엔오케이미칼 유성철 상무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로등 및 CCTV 추가설치 ▲명단산단 내 방치된 화단을 이용한 노상주차장 확보 ▲도로의 포트홀 문제 및 환경관리 ▲산단 내 생활 쓰레기 배출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장봉수 광양국가산업단지상생협의회장은 “바쁘

신 와중에 광양시의 발전을 위해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광양시는 국가산단 동호안 부지 규제개선 등 기업들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인회 광양시장은 “앞으로도 산업단지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현장 중심으로 적극 해결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시에서도 각종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군 내달부터 124개 마을 공동급식비 지원

곡성군이 본격 영농철을 맞아 마을공동급식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농민들의 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음달부터 124개 마을에 ‘공동급식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작업 수요가 많은 마을 중 조리 시설이 갖춰져 있고 20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은 공동

급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마을조리원의 인건비와 부식비로 최대 242만원이 지급된다.

또 공동급식이 어려운 마을에는 반찬 등을 공급 받아 급식하는 방식으로 33개 마을에 지원된다.

공동급식에 따른 위생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과 조리원 위생관리에 대한 수칙도 마련해 운영한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

여주시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5만원 2회까지 지원

여주시가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8~45세 청년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여주시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지원 기준은 올해 응시한 어학시험 18종(토익 등), 자격시험 545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격시험)이며, 2023년 12월 어학 응시 건도 소급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회 5만원 이내 2회까지이며, 올해 사업량인 380회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여주시 누리집 고사·공고 또는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 서류 확인 후 청년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청년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환 여주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어학 역량을 강화해 구직능력 향상을 이어지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정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관계자가 만감류 재배 농가 현장 컨설팅 후 농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아열대 작물 ‘만감류’ 재배 확대

수확 시기 늦은 한라봉·천혜향

곡성군이 새로운 농가 소득작목으로 ‘만감류’를 육성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곡성군은 최근 아열대성 작물인 천혜향 출하에 성공함에 따라 만감류를 육성 작목으로 선정하고 재배단지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만감류는 수확 시기가 늦은 감귤류,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등이다.

곡성군은 올해 만감류 재배단지를 0.7ha 확대하고 재배 농가에 연간 3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자부담에 대한 이자를 5년간 보장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작목을 선호하는 청

년농들의 성향을 반영해 재배기술 현장컨설팅을 비롯해 선진지 견학, 사업 추진 협의회 등도 지원한다.

곡성군은 지난 2019년 ‘지역활력화작목기반 조성 과수분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8ha에 천혜향과 레드향 등 총 2종의 만감류 특화단지를 조성해 지난 2월 3년만에 출하에 성공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만감류를 육성한다”며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기술보급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